

일본의 산업 정책 — 전시 경제 총동원 체제와 전후

수도대학 도쿄 교수 야마자키 시로우

현재 일본의 경제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0년대 전시 체제부터의 경제정책을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설비 투자의 조직적 조정의 역사적 경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전시의 총동원 체제를 위해 생긴 보조금,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카르텔 정책 등은 현재 일본의 거대한 회사들을 만들어 냈다.

1930년대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조선부문, 제철 자동차 등의 중공업에 중심으로 보조금, 보조법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추진하여 여러 중심 기업들을 성장시켰다. 특히, 중요산업 통제법(1931년)은 소규모 투자·과다경쟁을 배제, 또 합병(카르텔)을 촉진하고 가동률을 유지해서 기업의 대규모화를 노렸고 이를 통해 일본 제철, 오지제지, 미쓰비시중공업이 크게 성장했다. 또 30년대에서 40년대 사이, 외자를 배제, 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 보조금, 감세 등을 공통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법을 장기 계획으로 책정·전개하여 투자를 촉진시키려 했다. 1939년에 들면서 물자, 자금, 노동, 전력을 지역, 산업, 기업별로 우선 할당하는 생산력 확충 계획을 실시하여 전략적으로 한 사업을 5배 이상 성장시켰다. 몇 개의 기업을 선택해서 자본이나 자원을 집중 투자한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미쓰비시, 도요타, 닛산 등의 대기업들을 성장시켜 현재 일본 경제의 모습을 만들었다. 또, 생산력확충계획의 목표는 전쟁의 준비가 아니라, 만주와 일본의 자급적 경제였으나 결국 소비에트와의 전쟁을 준비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 전후인 50년대의 경제자립계획과 산업들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성장시키는 전시와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1960년대에는 무역·자본자유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조정했다. 대규모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의 수요를 간파해서, 경쟁을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했다. 기술 도입(외자)을 허가제로 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하되, 경쟁적 환경은 유지하고, 일본 개발은행의 융자에 의존하여 투자 카르텔을 실시했다. 각 기업들은 투자 카르텔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결국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기업 자체의 세계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일본이 경제저성장국면에 들어서자, 투자 카르텔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의한 성장은 문제점이 생겨났다. 또 원유·원료 코스트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초 소재의 수익이 급격히 적어졌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특정 산업 안정임시 조치법(1978년)과 특정 산업구조 안정임시 조치법(1983년)의 정책을 통한 계획적 조정으로 낮은 기술과 가격에 판매되는 소재산업(플라스틱, 철 등)을 일부 포기하고, 성공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했다. 또 90년 대 이 후로는 「산업구조 전환 원활화 임시 조치법」(1989년)과 「사업 혁신법」(1995년)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합병, 국제적 사업제휴, 신사업 개발에 지원을 하고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켰다.

40년대 이후의 일본은 투자 촉진 정책으로서 감세, 보조금, 정책 금융, 장기 수급 전망의 정책을 실시했고 대형 설비 투자의 촉진과 폐기에는 계획에 의한 조정이나 투자 카르텔이 유효하게 기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8년3월1日現在)

● Q&A

Q: 일본의 30년대 5개년 계획과 소비에트의 계획경제의 유사성.

A: 먼저 소비에트의 계획경제는 시대에 따라 그 모습과 원리가 조금씩 다르며 한 사업에서 하나의 기업을 선별해서 경쟁 없이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반면 일본의 경제정책은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일본의 계획경제의 특징은 기업들간의 경쟁이 심했다는 것이며 이 것은 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당시 큰 기업이었던 미쓰비시의 경우, 자신들의 원래 사업에 비해 큰 리스크 때문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작은 기업이었던 도요타의 경우는 원래 사업상의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경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경쟁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만주의 경우는 소비에트와 매우 비슷한 체제로 한 사업분야에 하나의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 성장시켰다.